

‘2010 광주 아트페어’ 9월 1~5일 개장

공공성·상업성 모두 잡는다

세계 60개 갤러리 참여 ... 현대미술·디자인 명품 전시

화가, 컬렉터, 비평가, 큐레이터, 관람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미술시장인 아트페어는 다양한 미술계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는 행사다.

스위스의 바젤 아트페어,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등 이미 입지를 굳힌 아트페어에는 전세계 유명 갤러리들이 대거 참여, 다양한 작품을 내놓고 있다.

오는 9월1일부터 5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국제아트페어 ‘2010 아트광주 Art Gwangju’는 후발주자로서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이번 아트페어의 가장 큰 특징은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행사인 광주비엔날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연계해 공공적 기능이 강화된 전시기획을 선보이고, 현대미술은 물론 디자인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9월 3일 개막하는 제8회 광주비엔날레와 함께 열리는 아트페어는 다양한 주제로 펼쳐지는 4개의 기획전시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아트페어 본연의 목적인 상업성도 고려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이용우 광주비엔날레재단 부이사장과 운영팀 크라운해태제과 회장이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서양화가 강연균씨와 박지택 광주시립

미술관장, 양승찬 광주화랑협회장 등 21명으로 조직위원을 구성했으며(주)아트플랫폼을 주관사로 선정했다.

세심한 자료조사를 거쳐 선정한 참여 갤러리는 모두 60여곳이다. 영국의 리슨갤러리와 이탈리아의 컨티뉴아갤러리, 일본의 갤러리 토미오 코야마, 중국의 탕갤러리와 베이징 코문 등 국제적 명성을 가진 해외 갤러리 40곳과 박여숙 화랑, 예화랑, 이도

화랑, 광주의 나인갤러리 등 국내 화랑 20곳이 부스를 차린다.

참여 갤러리들은 현대미술의 흐름을 반영한 거장의 작품과 디자인 관련 작품을 대거 선보일 계획이다.

조직위원회는 참여 갤러리 전시의에 ‘아시아 신진작가전’ 등 4개의 특별전을 준비했다. 또 돈 루벨, 토미오 코야마, 율리 시그 등 저명 아티스트와 비평가들이 참여, ‘아시아 미술시장의 오늘’ 등을 주제로 대담과 패널

토록을 진행하며 다양한 관객참여 프로그램과 퍼포먼스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8월에 타이베이 아트페어가 열리고, 9월9일에는 한국국제아트페어(KIAF)가 열리는 등 국내외의 아트페어가 비슷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개최될 예정이어서 경쟁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우 광주비엔날레 부이사장은 “작품의 유통이 이뤄지는 전형적인 아트페어와 달리 공공성과 시장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청년작가전 등 기획전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에서 처음 열리는 대규모 국제아트페어 ‘2010 아트광주 Art Gwangju’가 9월 1일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사진은 2010 바젤 아트페어 전시장. <광주비엔날레재단 제공>

특별전 어떤 게 있나?

‘현대미술 거장전’ ‘디자인 특별전’ 등 다채

‘2010 아트광주 Art Gwangju’에서는 참여갤러리 전시와 함께 아시아 지역 신진작가와 현대미술 거장들의 명품을 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린다.

40세 이하의 젊은 작가들이 참여하는 ‘아시아 신진작가전’(EAA·Emerging Asian Artists)에는 국내외 작가 30여명의 작품이 선보인다. 차웨이 타이(대만), 리아스 코무(인도), 다이아나 알 하디드(시

리아), 배영환 등이 참여한다. 또 전시와 함께 최근 5~10년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시아 현대미술 작가 100명의 작품 도록을 내낸 베니스비엔날레 공식 출판사인 실비아나 출판사가 참여해 발간한다.

현대미술과 디자인계의 거장들을 초대한 ‘현대미술 거장전’(Platform Project)에서는 최근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임

된 아이 웨이웨이를 비롯해 쿠사마 야요이(일본) 등 아시아 지역 거장들의 명작을 만나볼 수 있다.

또 세계 유명 디자이너들의 예술성과 조형성을 겸비한 현대디자인의 걸작들도 만날 수 있는 ‘디자인 특별전’에는 카림 라시드(이집트), 자하 하디드(이라크), 샤오 광(중국) 등이 참여한다.

이밖에 광주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 선보이는 광주청년작가전



배영환씨 맨디니

이 열린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김용안·김재성, 김혁·나명규·문형선 등 광주지역 청년작가 9명의 작품이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티베트 명상음악가 나왕 케촉 광주 무각사서 명상음악 연주

티베트의 세계적인 명상음악가 나왕 케촉(사진)이 광주를 찾아 명상 치유 음악을 들려준다. 29일 오후 7시30분 상무지구 무각사 문화공간 로터스 앞 마당.

문화공간 로터스가 매달 여는 ‘음악과 놀다’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서 나왕 케촉은 자신의 음반인 ‘사운드 오브 피스’(sound of peace)와 ‘윈즈 오브 디보션’(winds of devotion)의 수록곡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그는 특유의 대나무 피리를 이용한 무대도 선보인다.

나왕 케촉은 동부 티베트 초원지대의 유목민 가



정에서 태어나 1959년 가족과 인도로 망명해 30년간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다람살라에 살았으며 11년간 승려생활을 하면서 달라이 라마의 지도 아래 은둔자로 수련하고 철학과 명상음악을 익혔다. 그는 티베트하우스 콘서트와 자신 모금 티베트 독립 콘서트 등에 매년 출연해 인권운동가로도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문의 062-383-007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정의란 무엇인가’ 인기 폭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출간 두 달 만에 25만 부가 출고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펴낸 출판사 김영사는 “지난 5월 24일 출간된 이래 27일까지 25만 부가 출고됐다”면서 “하루 평균 1만 부씩 출고된 셈”이라고 29일 밝혔다.

한편, 저자인 샌델 교수는 다음 달 19일 방한, 20일 코엑스에서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강연할 예정이다. 강연회 참석을 원하는 독자는 김영사 네이버 카페(cafe.naver.com/gimmyoung)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협뉴스



한여름밤의 클래식 향연

도쿄프라임심포니 오케스트라 광주공연
8월 3·4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지휘 가토 피아노 조보은

도쿄프라임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오는 8월 3일~4일 이틀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도쿄프라임심포니 오케스트라는 1997년 창단된 민간 오케스트라로 요미우리니폰심포니 등 도쿄 유수의 오케스트라 단원과 국내의 유명 콩쿠르 입상자로 구성된 단체로 광주 출신 백홍승씨가 예술총감독을 맡고 있다.

도쿄프라임심포니 오케스트라를 거쳐 현재 도쿄스기나미 윈드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는 가토 아츠시가 지휘를 맡는 이번 광주 공연에는 현악파티 연주자 14명

이 참여,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준다.

3일 연주회에서는 차이코프스키의 ‘협을 위한 세레나데’와 모차르트의 ‘바이올린협주곡 4번’ 모차르트의 ‘피아노협주곡 27번’을 선사한다.

4일에는 광주에서는 좀처럼 듣기 어려운 비발디의 ‘피콜로협주곡 다장조’와 바흐의 ‘피아노협주곡 5번 바단조’, 엘가의 ‘협을 위한 세레나데’ 등을 만날 수 있다.

이를 연속 공연으로 연주하는 작품은 레스피기의 ‘고풍스런 무곡과 아리아 3번’과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뮤직’이

다. 협연자로는 요미우리니폰심포니 단원인 우메즈 마사요시(피콜로), 피아니스트 기영은·조보은, 바이올리니스트 고윤경이 참여한다.

한편 지휘자 가토 아츠시는 7일과 8일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 소속 연주자들을 대상으로 마스터 클래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62-226-203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무용단 ‘댄스 페스티벌’ 출연

내일 대전서 ... 발레 ‘발푸르그스의 밤’ 선보여

광주시립무용단(단장 김유미)이 대전시립무용단이 주최하는 ‘한여름밤, 댄스 페스티벌’에 출연한다. 30일 오후 8시 대전시립미술관 야외무대.

대전시립무용단이 광역시립무용단들을 초청해 개최하는 이번

축제에서 광주시립무용단은 발레 ‘발푸르그스의 밤’을 선보인다.

‘발푸르그스의 밤’은 샤를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를 발레로 옮긴 작품이다. 작품 제목 ‘발푸르그스의 밤’은 마녀들의 축제일인 4

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의 새벽을 말한다. 정정은·박성화·최운정·신승현·정아람·강진구·김치환씨 등이 출연한다.

한편 이번 공연에서 대구시립무용단은 ‘바하가 만난 아리랑-아리 아리랑’, 인천시립무용단은 ‘신데렐라’를 선보인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선후인’전 ... 아름답고 행복한 꽃들의 노래

8월 7일까지 조선대미술관

이미경·김미성 등 14명 참여

‘선후인’ 정기회원이 오는 8월7일까지 조선대미술관에서 열린다.

‘선후인’은 조선대 회화과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여성 작가들이 만든 모임으로 이번 전시는 조선대 개교 64주년과 미술관 개관 22주년 기념초대전으로 마련됐다.

회원들은 이번 전시에서 평면, 설치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미경씨는 신비로운 보랏빛 바탕에 피어 있는 꽃을 표현한 ‘꽃잠’을 내놓았으며 강진희씨는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감을 그린 ‘봄’ 시리즈를 선보인다.

또 김미성씨는 다양한 모양의 의자를 통해 소중한 사람들을 기억해 보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그밖에 윤윤덕·김왕주·강진희·명희희씨 등 모두 14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지현 작 ‘꿈꾸는 정물’

최고의 사업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등빌딩 임대문의 0621 222-0527

무등빌딩 임대문의 0621 222-0527